

##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특성 고찰

신 원 기\*

### 차 례

1. 들머리에
2.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
3. 등장인물의 양상에 나타난 특성
4. 등장인물의 양상과 특성의 의미
5. 맺으면서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인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을 고찰했다.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을 사람, 동물, 사물로 나누었을 때 사람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장성이 강화된 것인데, 그 이유는 『조선동화대집』 발간 당시의 강한 현실성이 반영되었고, 설화의 갈래인 민담의 영향, 그리고 작가인 심의린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등장인물의 양상에 나타난 특성을 선악, 강약, 능동성/수동성, 내향형/외향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동 인물의 일반적인

\* 부산 동천고등학교 교사

특성은 선하고, 약하고, 능동적이고, 내향형이었다. 주동 인물은 선한 성격으로 약한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반동 인물 또는 세계와의 갈등을 자기만의 주체적 판단 기준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었다. 반동 인물의 일반적인 특성은 악하고, 강하고, 능동적이고, 외향형이었다. 반동 인물은 악한 성격으로 강한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주동 인물 또는 세계와의 갈등을 타성적인 외부적 판단 기준으로 해결하다가 패배한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핀 이러한 양상과 특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특성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았다. 선악 특성은 ‘악한 현실과 권선징악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었고, 강약 특성은 ‘도덕성 우위의 전통성 지향’을 뜻하고 있었고, 능동성/수동성 특성은 ‘변화의 의지와 욕망의 개체화’를 암시하고 있었고, 내향형/외향형 특성은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를 의미하고 있었다.

주제어: 조선동화대집, 등장인물, 선악, 강약, 능동성, 수동성, 내향형, 외향형

## 1. 들머리에

본고의 목적은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조선동화대집』은 1926년에 심의린이 출간한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이자 설화집이다.<sup>1)</sup> 그래서 이 텍스트에 형상화된 인물 특성을 살피는 것은, 우리말 동화집·설화집의 최초 형태, 근원 형태에 나타난 인물 특성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근거나 원인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설화나 동화에서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수

1)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서, 2017.

럼·발산되었는가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서사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 중에서 사건과 배경은 인물을 부각하기 위해 설정된 장치로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등장인물을 극도로 왜소화시켜 구체적인 성격 제시 없이 상대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로 만든 서사도 있지만,<sup>2)</sup> 대부분의 서사에서 등장인물은 이야기를 주도하고,<sup>3)</sup> 독자들은 서사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인물의 특성을 찾아내어 감상한다. 특히 동화나 설화는 사건 중심의 서술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사건은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의미 있는 서사를 형성한다.<sup>4)</sup> 사건 중심의 서술인 동화나 설화에서 인물의 성격 고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인물이 단지 사건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설화에서도 등장인물은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5)</sup>

동화나 설화 등의 서사에서 등장인물은 인간적인 특성이 부여되고, 인간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존재자 또는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다.<sup>6)</sup>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말은 특성과 동기를 지닌 행동의 주체를 의미한다.<sup>7)</sup>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 등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라면 모두 등장인물에 포함된다.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을 통해 보여 주는 것도 동물의 속성이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적 특성, 어리석음, 무지, 악덕 등을 표현한다.<sup>8)</sup> 이러한 등장인물은 외적 관찰 대상일 때는 ‘인물’이라고 하고, 내적 속성을 가리킬 때는 ‘성격(character)’이라고 칭하기도 한다.<sup>9)</sup> 따라서 등장인물은 이야기에

2) 알랭 로브그리에 지음, 박이문 외 옮김, 『질투』, 민음사, 2005, 148쪽.

3)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7쪽.

4)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20쪽.

5) 이를 등장인물의 ‘텍스트적 기능’이라고 한다.(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34-35쪽.)

6)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39-40쪽.

7) 이대규, 『문학의 해석』, 신구문화사, 1998, 45쪽.

8) 김태환, 『우화의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2016, 6쪽.

등장하는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등장인물은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 채로, 서사에서 다양한 양상(樣相)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사람으로는 당연히 등장하고, 동물이나 신격(神格)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인물 형상과 특성의 고찰을 통해, 우리 동화나 설화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근원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동화나 설화의 등장인물은 이전의 논문에서도 연구된 적이 있다. 이강엽은 「설화의 ‘짜패’ 인물 연구」에서 둘이 함께 있어야 전체성을 지니게 되어 있는 존재를 짜패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신화, 전설, 민담에 나타난 쌍둥이, 남매, 형제의 인물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여, 짜패가 등장하는 설화는 같은 근원에서 출발한 두 인물을 짜패로 배치하여 차별성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이야기라고 결론짓는다.<sup>10)</sup> 이홍우는 「근대 재담집 『소천소지』 연구」에서 『소천소지(笑天笑地)』에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가족 관계, 상하 관계, 주객 관계, 중앙인과 주변인의 관계,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계, 특정 성씨 관계, 갑을 관계로 나누어 살피고, 그 특징을 신지식에 대한 신구(新舊)의 대결, 근대적 문명 수용인의 우월감, 개인적인 웃음의 추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1)</sup> 김정철은 「그림형제 동화의 등장인물 연구」에서 그림형제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야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있다.<sup>12)</sup> 그는 이 논문에서 동화의 등장인물들은 명칭이나 신분으로 평가될 수 없고, 줄거리가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 등장인물들

9)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175~178쪽.

10) 이강엽, 「설화의 ‘짜패’ 인물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33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45~76쪽.

11) 이홍우, 「근대 재담집 『소천소지』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34집, 한국구비문학회, 2012, 39~86쪽.

12) 김정철, 「그림형제 동화의 등장인물 연구」, 『독일어문학』 제62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3, 93~111쪽.

을 주인공, 조연(과제부여자, 조력자, 적수), 엑스트라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

위의 논문들은 동화나 설화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과 특성을 나름대로 잘 밝히고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행동, 역할, 기능 등을 고찰하여 이야기의 의미와 관계와 기능을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심층보다는 표층에 치중했다는 빈틈이 보인다. 즉, 등장인물의 행동, 역할, 기능 등의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 관계, 기능을 도출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등장인물의 행동 또는 결과 이전에 그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심층적이고 ‘원인’적인 특성에 관한 고찰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등장인물의 행동, 역할, 기능을 참조하여, 그 심층에 있는 심성의 선악과 영향력의 강약, 행동의 능동성/수동성과 성향의 내향형/외향형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즉, 어떤 등장인물의 행동 ‘결과’를 도출한 ‘원인’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특성 고찰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는 결과가 어떤 근거와 원인에 의해 나타났는가를 알 수 있고, 이러한 행동 원인의 특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설화의 일반적인 등장인물 특성과 『조선동화대집』의 고유한 등장인물 특성은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주로 사람, 동물, 사물 등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빈도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sup>13)</sup> 다음은 이러한 등장인물의 양상에 나타난 특성은 어떠한지를 들

13)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구분은 갈등 양상을 염두에 두고 나눌 것이다. 그리고 갈등 양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는 분석에서 제외할 것이다. 분석에서 제외되는 이야기는 <11. 효자의 도움>, <24. 다람쥐의 보은>, <26. 바보 모집>, <33. 호랑이 모집>, <39. 용기 장사>, <40. 완고 양반>, <55. 천도 얻은 효자> 등이다. <11. 효자의 도움>, <24. 다람쥐의 보은>, <39. 용기 장사>, <40. 완고 양반>, <55. 천도 얻은 효자>의 이야기는 병환, 노쇠함, 공상, 완고함 등의 현상이 인물과 갈등하는 경우이고, <26. 바보 모집>, <33. 호랑이 모집>은 주로 해학적인 이야기 모음이어서 갈등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해학은 웃음의

여다볼 것이다. 등장인물의 특성은 등장인물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야기 서두에 제시된 상황이나 갈등을 처리하는 태도에서 드러날 수 있다. 즉, 선악, 강약(물리력, 부귀, 빈천), 능동성/수동성, 내향형/외향형<sup>14)</sup> 등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핀 이러한 양상과 특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특성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략 100년 전의 동화나 설화에 나타난 인물 양상과 특성은 어떠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

본장에서는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등장인물이 사람, 동물, 사물 등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빈도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필 것이다. 서사물에서 인물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sup>15)</sup> 본고에서는 갈등 양상을 고려하여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주동 인물은 서사물에서 관심의 주된 초점이 되는 인물<sup>16)</sup> 또는 중심 인물을 말하는데,<sup>17)</sup> 중심 인물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sup>18)</sup> 또한 주동 인물은 주로 제목에 제시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야기

---

주체가 웃음의 대상을 공격하지 않는 공감적 상황을 나타내어서, 갈등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조선동화대집』에는 총 66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고에서는 위에서 밝힌 7편의 이야기를 제외한 59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 14) 내향형과 외향형은 의식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들과 무의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심리를 분류한 심리학적 유형론이다.(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7, 142~160쪽.)
- 15)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348~349쪽.
- 16)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214쪽.
- 17) 구인환, 『소설론』, 삼지원, 1997, 261쪽.
- 18)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19쪽.

의 초점 인물, 중심 인물, 제목에 제시된 인물을 주동 인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야기 중심의 비중이 두 인물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제목에 제시된 인물을 주동 인물로 간주했다. 반동 인물은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주인공과 경쟁하는 인물이고,<sup>19)</sup> 주동 인물의 의도나 행위를 방해하는 인물이다.<sup>20)</sup> 주동 인물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반동 인물은 그 주동 인물의 의지와 행동을 방해하는 인물이다. 이야기 진행 과정, 즉 사건이 일어나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갈등 때문인데,<sup>21)</sup> 이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상충되는 두 의지가 맞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의 양 극단에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위치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이야기의 진행 속에서 볼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사람, 동물, 사물(神靈 포함)로 나누고,<sup>22)</sup> 이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3)</sup>

\* 양상 통계표

|       | 사람[人] | 동물[動] | 사물·신령[事] | 합   |
|-------|-------|-------|----------|-----|
| 주동 인물 | 45    | 15    | 2        | 62  |
| 반동 인물 | 39    | 14    | 7        | 60  |
| 합     | 84    | 29    | 9        | 122 |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합쳐 사람 84회(약

19)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22쪽.

20) 구인환, 『소설론』, 삼지원, 1997, 261쪽.

21) 이대규, 『문학의 해석』, 신구문화사, 1998, 52쪽.

22) 동물이 사람의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일단 동물로 분류했다. 그리고 사물은 신령(神靈)을 포함하여 인간, 동물 이외의 존재로 설정했다.

23) 59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고찰했는데, 주동 인물은 62회, 반동 인물은 60회 등장한다. 주동 인물이 2명인 이야기가 3편이고(<43. 혹 달린 늑은이>, <61. 쌍평의 보은>, <66. 두꺼비의 보은>), 반동 인물이 2명인 이야기가 1편이다(<6. 당나귀 알>).

69%), 동물 29회(약 24%), 사물 9회(약 7%)로 사람 등장인물이 월등히 많았다.

사람 등장인물은 주동 인물로는 농부, 아우, 오성(이항복), 유복자, 해몽자, 어린 군수, 오누이, 두꺼비[兒名], 반쪽이, 흥부, 사형제, 집꾼, 김득선, 콩쥐, 의좋은 형제, 정직한 늙은이, 학동, 떡보, 한량, 농촌 사람, 소녀, 노인, 바보 사위, 가난한 사람, 외쪽이, 무도한 농민, 토목공이, 사냥꾼의 부인, 금돌이, 욕심 많은 늙은이, 목서방, 군수, 두 형님, 천치 신랑, 완고 학자 등이 등장했다.

그리고 반동 인물로는 스님, 가게 주인, 당나귀 주인, 장인, 징 제조자, 동리 사람들, 부유한 농부, 황제, 부자, 아들 갑득이, 어린애, 사람들, 하인, 선생, 아우, 술보, 처가 식구, 재상, 동네 사람·친구, 도적, 수박 장수, 금애, 나쁜 형, 친구, 동네 청년, 늙은 아전, 놀부, 자린고비, 청지기, 계모, 사람들, 욕심 많은 형, 중국 사신, 군수, 생원, 어떤 사람 등이 등장했다.

주동 인물이든 반동 인물이든 가난한 평민이 주를 이루었고, 부자나 권력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비하고 환상적인<sup>24)</sup> 인물보다는 마을 안이나 길 가다가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즉,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은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인물보다는 현실성이 강한 인물 형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동물 등장인물은 주동 인물 15회, 반동 인물 14회 모두 29회 등장했다.(29회. 29/122. 24%.) 주동 인물로는 곰, 멧돼지, 고양이(2회), 이리, 여우(2회), 토끼, 거북, 두꺼비(2회), 개(2회), 꿩, 호랑이(2회), 멀치 등이 등장했고, 반동 인물로는 가자미, 토끼(2회), 거북이, 게, 쥐, 범(3회, 호랑이), 원숭이, 이무기, 여우(2회), 구렁이, 지네 등이 등장했다. 호랑이

24) 신비성이나 환상성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을 지칭한다. 굳이 구분하자면 신비성은 현실의 시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특성이고, 환상성은 비현실의 시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특성이다.(한명숙, 『이야기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433쪽.)

가 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호랑이는 그 힘과 용맹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이중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다.<sup>25)</sup> 그런데 『조선동화대집』에 5회 나타난 호랑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악하고 강한 두려운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사람에 감화된 경우는 없고, 영맹형(獍猛型)으로만 등장했다.<sup>26)</sup>

호랑이 다음으로 여우 4회, 토끼 3회, 개, 거북이, 고양이, 두꺼비 각각 2회 나타났다. 모두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고, 민중들과 친숙한 동물이 자주 등장했다.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야기는 수렵민족의 동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sup>27)</sup>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동물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sup>28)</sup>

사물은 9회 등장했는데, 전체 등장인물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다.(9/122, 0.7%.) 주동 인물에 나타난 사물 2회는 신령(神靈: 개구리 신선, 견우·직녀)이었고, 반동 인물에 나타난 사물 7회는 신령(도깨비 3회, 옥황상제, 선녀 2회)과 물건[구슬]이었다.

사물 등장인물은 신령이 9회 중 8회였다. 그중에서 신선, 선녀, 옥황상제 등이 5회 등장했는데, 이는 신선 사상의 기반 위에 통속적인 여러 신앙적 요소를 수용한 도교 또는 민속 신앙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9)</sup>

서양의 동화나 그림형제의 동화는 기독교 하느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up>30)</sup> 하지만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부처나 다른 종교의 신령은 거

25) 이어령 책임편집, 『십이지신 호랑이』, 생각의나무, 2009, 136쪽.

26)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1984, 360쪽.

27) 김정철, 『그림형제의 동화』, 경북대학교출판부, 2008, 131쪽.

28) 동물이 인간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보이는 이야기는 <16. 곰과 멧돼지>에 등장하는 곰과 멧돼지뿐이다. 특히, 호랑이는 신체적으로는 인간보다 우월하지만,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지체에 패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760쪽.

30) 『그림동화집』에는 하느님, 예수, 하늘나라, 성모마리아 등에 관한 이야기가 ‘어

의 나타나지 않고, 민간의 신령에 가까운 도깨비, 옥황상제, 신선, 선녀 등의등장이 두드러진다. 옥황상제나 선녀는 도교의 신령이지만,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띤 인물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하느님 [天神]의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을 사람, 동물, 사물로 나누었을 때 사람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물이나 신령보다는 ‘사람’ 등장인물이 훨씬 많았다. 이는 『조선동화대집』이 ‘동화’ 모음집이라는 제목을 제시했지만, 내용은 ‘우화(寓話)’의 형태보다는 ‘실화(實話)’의 형태를 띠면서, 현장성<sup>31)</sup>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물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자연에 토대를 갖지 않은 환상적 관념이다.<sup>32)</sup>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을 등장시켜서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등장시켜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 전개 사실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sup>33)</sup>

이는 『조선동화대집』 발간 당시의 강한 현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화의 갈래인 민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작자인 심의린의 의도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설화 갈래는 구비전승되는 갈래이지만 어느 한 시대의 모습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다.<sup>34)</sup> 그리고 채록 당시의 시대적·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선동화대집』의 1926년 채록 또는 기록 당시에 신비성이나 환상성보다는 현실성이 우세한 상황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20년대는 출판과 저널 등의 계몽

---

린이를 위한 성자 이야기’라고 하여, 다른 동화와 분리되어 따로 10편이 실려 있다.(그림 형제 지음, 김경연 옮김, 『그림 형제 민담집』, 현암사, 2021, 915~931쪽.)

- 31) 여기서 ‘현장성(現場性)’이란 말은 현실 또는 사실과 공존하는 시간적·공간적 특성을 뜻한다. 현실과 사실이 어떤 사건 자체를 가리킨다면, 현장성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했다.
- 32) 존 로크 지음, 정병훈 외 옮김, 『인간지성론』 1, 한길사, 2014, 539쪽.
- 33)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사, 2017, 48쪽.
- 34)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260쪽.

운동으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했고, 일본이란 타자와 구별되는 민족의식이 강화되는 시기였다.<sup>35)</sup> 이는 식민지 조선이 일본과 다르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서구화된 일본이 조선의 모순을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성 대신에, 일본을 극복하고 민족을 담은 독립을 요구하는 강한 현실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던 것이다.<sup>36)</sup> 그래서 1920년대 출판된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에도 환상성보다 현실성이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가 현장성이 강화된 다른 이유는 민담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설화는 신화-전설-민담으로 변모해 가면서 소설화된다고 볼 수 있고,<sup>37)</sup> 이 소설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초월적 시공간의 폐지인데,<sup>38)</sup> 이는 다름 아닌 주인공의 현실화이다. 즉, 신화의 천상적 주인공이 소설의 지상적 주인공으로 변하면서, 소설은 현실 반영의 리얼리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하늘과 땅을 무대로 활약하는 신화적 인물, 일반인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전설적 인물은 현실의 인물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인물이 민담 갈래에서는 우리 곁의 평범한 주인공으로 변모한다. 그래서 민담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상적 인물이고, 이러한 지상적 인물이 『조선동화대집』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현장성이 강한 인물이다. 따라서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은 민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가 현장성이 강화된 또 다른 이유는 설화의 기록 과정에서 작자인 심의린의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5)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12쪽, 49쪽.

36) 당대 발행된 『개벽』의 <은파리>에서도 ‘민족의식 고취’의 주제를 찾을 수 있다.(신원기, 『『개벽』의 <은파리>에 나타난 풍자의 양상』, 『동학학보』 제58호, 동학학회, 2021, 102~103쪽.)

3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6, 487~488쪽.

38)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79쪽.

『조선동화대집』의 <8. 개구리 신선>, <34. 사냥꾼의 소원>, <35. 똑같은 재주>는, 심의린이 독일 『그림동화집』의 <개구리 왕자>, <어부와 그의 아내>, <재주가 좋은 네 형제>를 변안한 이야기이다. 『그림동화집』의 이 이야기들은 현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건을 전개하여 ‘개인-초월-정신’을 강조하는 초월적 환상성을 나타내는데,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에서는 현실 시공간에서 사건을 전개하여 ‘사회-현실-물질’을 강조하는 현실적 사실성이 나타난다.<sup>39)</sup> 이는 ‘초월적 환상성’이라는 원전의 특성을 심의린이 변안하면서 ‘현실적 사실성’이라는 특성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는 사건의 전개뿐 아니라 인물 특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은 작가의 의도가 작용하여 현장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등장인물의 양상에 나타난 특성

본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등장인물들의 양상을 바탕으로, 그 등장인물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야기 서두의 상황이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중심으로, 선악, 강약(물리력, 부귀, 빈천), 능동성/수동성, 내향형/외향형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이 중에서 선악과 강약은 이야기 처음부터 주어진 특성인 1차적 특성이라 할 수 있고, 능동성/수동성, 내향형/외향형은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선악은 본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물리력·부귀·빈천의 강약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조건이라 할 수 있기에 1차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결정하느냐, 타인의 의지대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느냐와 같은 능동성/수동성과, 행위의 결정 기준을 주체에 두는가 객체에 두는가와 같은 내향

39)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사, 2017, 95-96쪽.

형/외향형은 2차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동화대집』의 59편 이야기에 등장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0)</sup>

\* 주동 인물 특성표

|                  |       |      | 강(強) | 약(弱) | 능동성 | 수동성 | 내향형 | 외향형 |
|------------------|-------|------|------|------|-----|-----|-----|-----|
| 주<br>동<br>인<br>물 | 사람(人) | 선(善) | 3    | 27   | 20  | 10  | 17  | 13  |
|                  |       | 악(惡) | 7    | 8    | 12  | 3   | 10  | 5   |
|                  | 동물(動) | 선(善) | 3    | 7    | 10  | 0   | 5   | 5   |
|                  |       | 악(惡) | 4    | 1    | 5   | 0   | 2   | 3   |
|                  | 사물(事) | 선(善) | 1    | 0    | 1   | 0   | 1   | 0   |
|                  |       | 악(惡) | 0    | 1    | 0   | 1   | 1   | 0   |

\* 반동 인물 특성표

|                  |       |      | 강(強) | 약(弱) | 능동성 | 수동성 | 내향형 | 외향형 |
|------------------|-------|------|------|------|-----|-----|-----|-----|
| 반<br>동<br>인<br>물 | 사람(人) | 선(善) | 10   | 9    | 12  | 7   | 4   | 15  |
|                  |       | 악(惡) | 20   | 0    | 18  | 2   | 5   | 15  |
|                  | 동물(動) | 선(善) | 1    | 2    | 3   | 0   | 1   | 2   |
|                  |       | 악(惡) | 10   | 1    | 8   | 3   | 3   | 8   |
|                  | 사물(事) | 선(善) | 5    | 0    | 3   | 2   | 3   | 2   |
|                  |       | 악(惡) | 2    | 0    | 2   | 0   | 2   | 0   |

1) 선악(善惡)

선과 악은 설화와 동화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에서 악의 기여가 없는 선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1)</sup> 이러한 선악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가리키는 데, 선(善)이란 사회가 도덕적 가치로 인정하면서 그것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고, 악(惡)은 이것과 정반대의 것이다.<sup>42)</sup>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

40) 총 59화 이야기 중에서 주동 인물은 62회(43화, 61화, 66회에서 2명씩 등장) 나타나고, 반동 인물은 60회(6화에서 2명 등장) 나타난다.

41)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90쪽.

42)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478쪽.

선동화대집』의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선악을 살피기로 한다.

사람이면서 착한 주동 인물은 농부, 아우, 오성(이항복), 유복자, 해몽자, 어린 군수, 오누이, 두꺼비[兎名], 반쪽이, 흥부, 사형제, 짐꾼, 김득선, 콩쥐, 의좋은 형제, 정직한 늙은이, 학동, 떡보, 한량, 농촌 사람, 소녀 등이었다. 그리고 사람이면서 악한 주동 인물은 노인, 바보 사위, 가난한 사람, 외쪽이, 무도한 농민, 토목공이, 사냥꾼의 부인, 금돌이, 욕심 많은 늙은이, 목서방, 군수, 두 형님, 천치 신랑, 완고 학자 등이었다. <6. 당나귀 알>에서 수박을 당나귀 알로 알아듣는 농부, <9. 금방망이 은방망이>에서 자신보다 부모님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우, <30. 놀부와 흥부>에서 제비로 인해 부자가 되는 흥부 등은 착한 주동 인물이고, <12. 네모진 보석>에서 부자가 되자 교만해진 가난한 사람, <13. 외쪽의 피>에서 주인 일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외쪽이, <43. 흑 날린 늙은이>에서 흑 떼러 갔다가 흑을 하나 더 달게 된 늙은이 등은 악한 주동 인물로 볼 수 있다.<sup>43)</sup>

사람이면서 착한 반동 인물은 스님, 가게 주인, 당나귀 주인, 장인, 징제조자, 동리 사람들, 부유한 농부, 황제, 부자, 아들 갑득이, 어린애, 사람들, 하인, 선생, 아우, 술보, 처가 식구, 재상, 동네사람·친구 등이었다. 그리고 사람이면서 악한 반동 인물은 도적, 수박 장수, 금애, 나쁜 형, 친구, 동네 청년, 늙은 아전, 놀부, 자린고비, 청지기, 계모, 사람들, 욕심 많은 형, 중국 사신, 군수, 생원, 어떤 사람 등이었다. <1. 은혜 모르는 호랑이>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 주는 스님, <3. 푸른 보자기>에서 도둑을 용서해 주는 가게 주인, <31. 늙은 아버지를 내다 버린 사람>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아들 갑득이 등은 착한 반동 인물이고, <5. 호랑이를 잡은 도적>에서 송아지 대신 호랑이 등에 탄 도적, <14. 착한 아우>에서 아우의 눈을 멀게 한 나쁜 형, <21. 장승 해몽>에서 해몽자를 속

43) 분석 텍스트는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서, 2017.’로 한다. 논의의 간명함을 위해 해당 쪽수는 필요한 경우에만 밝히기로 한다.

이는 동네 청년 등은 악한 반동 인물로 볼 수 있다.

동물이면서 착한 주동 인물은 곰, 멧돼지, 고양이(2회), 이리, 여우, 토끼, 거북, 두꺼비(2회), 개(2회), 꿩 등이었고, 동물이면서 악한 주동 인물은 호랑이(2회), 멸치, 여우 등이었다. <16. 곰과 멧돼지>에서 큰 계와 싸워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는 곰과 멧돼지, <19. 두건 쓴 고양이>에서 주인의 병 치료를 위해 천 마리 쥐를 잡아주는 고양이, <56. 개와 범>에서 주인으로 하여금 호랑이를 잡게 하는 개 등은 착한 주동 인물이고, <1. 은혜 모르는 호랑이>에서 자신을 구해 준 스님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2. 멸치의 꿈>에서 해몽에 화가 나서 가자미를 때리는 멸치, <51. 피 있는 여우>에서 호랑이를 속이는 여우 등은 악한 주동 인물로 볼 수 있다.

동물이면서 착한 반동 인물은 가자미, 토끼(2회), 거북이 등이었고, 동물이면서 악한 반동 인물은 계, 쥐, 범(3회, 호랑이), 원숭이, 이무기, 여우(2회), 구렁이, 지네 등이었다. <2. 멸치의 꿈>에서 가자미의 꿈을 제대로 해몽한 가자미, <54. 자리 다툼>에서 거북과 상좌를 다투는 토끼, 거북 등은 착한 반동 인물이고, <16. 곰과 멧돼지>에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계, <23. 악독한 범>에서 가난한 과부를 잡아먹는 범 등은 악한 반동 인물로 볼 수 있다.

사물이면서 착한 주동 인물은 신선이었고, 사물이면서 악한 주동 인물은 견우·직녀였다. 그리고 사물이면서 착한 반동 인물은 도깨비, 옥황상제, 선녀, 선녀, 보석 구슬 등이었고, 사물이면서 악한 반동 인물은 도깨비(2회)였다.

주동 인물이 선한 경우 41회, 악한 경우 21회로 선한 주동 인물이 2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설화에서는 주동 인물이 거의 선하게 나오는데 비해, 악한 주동 인물이 62화 이야기 중에서 21회나 등장했다.(21/62. 34%.)

사람과 동물로 나누어 보면, 주동 인물은 사람 선 30 악 15, 동물 선

10 악 5로, 선한 존재가 악한 존재의 2배였다. 주동 인물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선한 존재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반동 인물은 사람 선 19 악 20, 동물 선 3 악 11로, 사람은 선악이 비슷했지만, 동물은 악한 인물이 두드러졌다.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사람, 동물, 사물의 선악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착한 사람 주동 인물은 선함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악한 사람 주동 인물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착한 사람 반동 인물은 욕심 없고 순수한 인물이었고, 악한 사람 반동 인물은 재물이 많은데도 욕심을 부리는 인물로 나타났다.

착한 동물 주동 인물은 맹수가 아닌 약한 동물이 많았고, 악한 동물 주동 인물은 맹수이거나 음흉한 술책을 부리는 동물이었다. 착한 동물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과 마찬가지로 맹수 아닌 약한 동물이었다고, 악한 동물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과 마찬가지로 맹수이거나 술책을 부리는 동물이었다.

사물에서는 하늘의 존재인 신선, 선녀, 옥황상제 등이 착한 인물로 등장했고, 도깨비는 착한 반동 인물과 악한 반동 인물 양쪽으로 등장했다.

## 2) 강약(強弱)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금력이나 권력 또는 물리력이 많은가 적은가, 센가 약한가에 따라 인물 특성을 강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강약은 등장인물이 지닌 영향력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이 강하다는 것은, 부(富)·권위·힘이 있어서 ‘강제력을 통하여 예속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sup>44)</sup>이 있다는 뜻이다. 이때 힘은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sup>45)</sup>

44) 양운덕, 『미셀 푸코』, 살림, 2005, 13쪽.

45) 김태환, 『우화의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2016, 43쪽.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특성을 강약으로 나누었을 때, 주동 인물은 강 18회, 약 44회로 나타났는데, 약한 등장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44/62. 71%.) 주동 인물 중 약한 특성의 인물은 가난한 부인, 노인, 농부(3회), 바보 사위(2회), 착한 아우(4회), 가난한 사람, 외족이, 유복자, 해몽자, 어린 군수, 오누이, 이리, 여우, 두꺼비(가난한 소년), 오성 이항복, 흥부, 사냥꾼의 부인, 사형제, 짐꾼, 김득선(가난하고 착한 고아), 콩쥐, 의좋은 형제, 정직한 늙은이, 욕심 많은 늙은이, 토끼, 학동, 거북, 여우, 떡보, 개(2회), 떡보, 어린 아이(2회), 꿩, 고양이, 한량, 두꺼비, 소녀 등이었다. <9. 금방망이 은방방이>의 정직하고 효성스러운 아우, <13. 외족의 피>에서 주인의 학대를 받는 외족이, <58. 군수와 어린 아이>에서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피로 극복하는 어린 아이 등이 주동 인물로서 금력, 권력, 물리력이 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로 보아, 주동 인물은 부나 권위, 힘이 적거나 없는 상태로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동 인물의 강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착하고 약한 사람이었다.<sup>46)</sup> 특히 주동 인물이 사람이면서 선한 경우는 강 2회 약 27회로, 착하고 약한 사람 주동 인물이 착하고 강한 사람 주동 인물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반동 인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유형은 악하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20회 등장했다.(20/60. 33%.) 도적, 금애(귀족의 딸), 나쁜 형(4회), 양반, 친구, 동네 청년, 늙은 아전, 놀부, 자린고비, 이무기, 청지기, 계모, 사람(2회), 여우(2회), 중국 사신, 군수, 생원 등이었다. <5. 호랑이를 잡은 도적>에서 송아지 대신 호랑이 등에 올라 탄 도적, <30. 놀부와 흥부>에서 동생 흥부를 학대하는 놀부, <58. 군수와 어린 아이>에서 겨울에 참외를 구해오라는 군수 등이 악하고 강한 사람으로 등장했다. 특히 약하고 악한 사람 반동 인물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반동 인

46) 악하고 약한 동물 주동 인물은 1회만 나타나는데, <51. 피 있는 여우>에 등장하는 ‘여우’이다.

물에서 동물은 악하고 강한 인물은 10회 등장했고[범(호랑이, 3회), 원숭이, 이무기, 여우(2회), 구렁이, 지네], 악하고 약한 인물은 1회(쥐) 등장했다.

이로 보아 사람이든 동물이든 악하고 약한 경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과 동물 모두 반동 인물일 경우, 악하고 강한 특성이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人: 20회, 動: 10회. 30/60. 50%) 즉 반동 인물은 권위 있고 부유함, 힘이 많거나 센 상태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강약 특성을 보면, 주동 인물은 착하고 약한 사람으로 대표되고,(27회/62회) 반동 인물은 악하고 강한 사람으로 대표된다.(20회/60회) 그리고 동물일 경우에는 악한 반동 인물일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10회/60회) 이를 보면,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는 대체로 착하고 약한 사람이, 악하고 강한 사람과 갈등하고 대결한다는 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착하고 약한 사람 주동 인물은 악하고 강한 사람 반동 인물과 주로 대립하면서, 악하고 강한 동물하고도 대결한다. 27회 등장하는 선하고 약한 사람 주동 인물은 10회 정도 악하고 강한 동물과 대결한다. 동물 등장인물은 전체적으로 선하고 강한 경우보다는(4회), 악하고 강하게 형상화된 경우가 많다(14회).

등장인물의 강약 특성을 살핀 결과, 주동 인물은 약자로 등장하고 반동 인물은 강자로 등장하여, 약한 주동 인물이 강한 반동 인물과 갈등하는 구조로 『조선동화대집』의 전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능동성/수동성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의 동기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특성을 능동성과 수동성으로 나눌 수 있다. 능동성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고, 수동성은 어떤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으로 규정

할 수 있다.<sup>47)</sup> 즉, 행위자가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을 능동성으로, 행위자가 외부 실체의 작용으로부터 관념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동성이라 할 수 있다.<sup>48)</sup> 등장인물의 동기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주동 인물은 능동 48회 수동 14회였고, 반동 인물은 능동 46회 수동 14회로 나타났다. 주동 인물은 부나 권위가 약한 상태에서 강한 반동 인물과의 갈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48/62. 77%) 이는 설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주인공의 형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49)</sup> 반동 인물도 주동 인물과의 갈등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46/60. 77%) 이는 갈등 상황에서는 주인공의 상황의 강약을 떠나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모두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성격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설화에 일반적인 수동적 인물상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인물상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경우, 주동 인물의 선한 능동성은 20회, 선한 수동성은 10회로 나타났다. <9. 금방망이 은방망이>, <10. 이오성>의 정직한 아우, 오성 등이 주동 인물의 선한 능동성을, <14. 착한 아우>의 아우가 선한 수동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보아 선한 인물의 경우에도 반동 인물과의 갈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악한 주동 인물은 능동성이(12회) 수동성보다(3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3. 푸른 보자기>, <13. 외쪽의 피>의 가난한 부인, 외쪽이 등이 주동 인물의 악한 능동성을, <7. 바보 사위>의 사위가 악한 수동성을 나

47) 존 로크 지음, 정병훈 외 옮김, 『인간지성론』 1, 한길사, 2014, 348쪽.

48) 존 로크 지음, 정병훈 외 옮김, 『인간지성론』 1, 한길사, 2014, 414쪽.

49) 우리 설화에서 궁지에 빠진 등장인물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 이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다. 설화에서 곧잘 사용되는 환상적 기법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다.(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247쪽.)

타내고 있었다. 이로 보아 주동 인물은 악한 행동을 할 때에도 주어진 상황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악을 ‘행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동 인물이 동물일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능동성을 띠고 있었다. 이야기 속의 동물은 사람의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므로,<sup>50)</sup> 인간을 빗댄 동물이 수동적이면 인간성보다는 동물성에 가까운 형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이 인간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전 동물의 특성과 확실히 다른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야 하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특성을 나타내어야 제대로 된 인간의 특성을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동 인물이 사람일 경우에도 능동성이 두드러졌다. 선한 반동 인물의 능동성/수동성은 12:7이었고, 악한 반동 인물의 능동성/수동성은 18:2였다. 선한 반동 인물의 능동성은 <3. 푸른 보자기>, <7. 바보 사위>의 가게 주인, 장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수동성은 <1. 은혜 모르는 호랑이>의 스님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악한 반동 인물의 능동성은 <8. 개구리 신선>, <9. 금방망이 은방망이>의 금애, 나쁜 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수동성은 <46. 토끼의 지혜>의 마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선악 모두 반동 인물은 능동적이었는데, 악한 반동 인물의 능동성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악한 반동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근원 상황은 안정되고 선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주동 인물이 처한 안정되고 선한 상황을, 악한 반동 인물이 등장하여 불안정되고 악한 상황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야기의 처음 상황은 주어진 것이기에 수동적이다. 이러한 선한 수동성을 깨뜨려야 하니까, 악한 반동 인물은 능동적으로 행위할 수밖에 없다.

반동 인물이 동물일 경우 역시 선악 모두 능동성이 두드러졌다. 이는 주동 인물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물 인물이므로, 능동적으로 형상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50) 심우장 외,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 책과함께, 2008, 9쪽.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사람, 동물의 능동성/수동성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 선악을 불문하고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모두에서 능동성이 강했다. 이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었다. 선한 인물은 선한대로, 악한 인물은 악한대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욕망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었다.

#### 4) 내향형/외향형

다음은 내향형과 외향형의 특성을 살펴도록 하자. 내향적, 외향적 태도의 구별은 그 개체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객체를 주체보다 중요시하면 외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객체보다 주체를 중요시하면 내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즉, 어떤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주로 바깥의 기준을 따른다면 외향적이라 할 수 있고,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주로 자신 내부의 기준을 따른다면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배타적으로 번갈아 나타날 수 있지만, 의식에 공존할 수는 없다.<sup>52)</sup> 그래서 어떤 인물의 성격 유형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동 인물 내향형은 <29. 반쪽 사람>, <64. 세도 재상과 한량>, <66. 두꺼비의 보은>에 등장하는 반쪽이, 한량, 소녀 등에서 확인되고,<sup>53)</sup> 주동 인물 외향형은 <37. 김득선의 후회>, <48. 삼인의 학동>, <63. 여우의 변화>의 김득선, 학동, 농촌 사람 등을 들 수 있다.<sup>54)</sup> 반동 인물 내

51)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7, 147~148쪽.

52) 권석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학지사, 2015, 103쪽.

53) 반쪽이, 한량, 소녀 등의 인물은 결혼, 벼슬, 부친 쾌유 등을 위해, 스스로의 기준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내향형 인물로 볼 수 있다.

향형은 <32. 토목공이와 자린고비>, <46. 토끼의 지혜>, <47. 말하는 남생이>에 등장하는 자린고비, 사람들, 욕심 많은 형 등에서 확인되고,<sup>55)</sup> 반동 인물 외향형은 <3. 푸른 보자기>, <57. 떡보의 성공>, <59. 거짓말 잘하는 아이>의 가게 주인, 중국 사신, 생원 등을 들 수 있다.<sup>56)</sup> 즉, 주동 인물은 총 62회 중에서 내향형 36회 외향형 26회, 반동 인물은 총 60회 중에서 내향형 18회 외향형 42회로 나타났다.<sup>57)</sup>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선하고 약한 주동 인물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동력은 내향형 유형이다. 내향형은 36/62로 총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의 판단을 시도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내향형의 인물은 자기 충실과 원리 원칙을 높이 내세우는데,<sup>58)</sup> 이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긍심과 연결된다. 높은 자긍심은 실제 자신보다 자신이 더 스마트하다고 믿고 성취감과 희망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sup>59)</sup>

주동 인물은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객체 중심의 이미 주어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동 인물은 바깥의 기준이 아니라, 내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주도적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반동 인물과 대결한다.<sup>60)</sup> 이에 비해 악하고 강한 반동 인물은 대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판

54) 김득선, 학동, 농촌 사람 등은 결혼, 떡 먹기, 여우의 정체 파악 등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외향형 인물로 볼 수 있다.

55) 자린고비, 사람들, 욕심 많은 형 등은 부유함, 배려 등을 위해, 스스로의 기준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내향형 인물로 볼 수 있다.

56) 가게 주인, 중국 사신, 생원 등은 도깨비의 해로움 극복, 손짓과 몸짓 분석, 대화 해석 등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외향형 인물로 볼 수 있다.

57) 내향형/외향형 분석은 동물과 사물은 용례가 많지 않아, 주로 사람 등장인물의 통계를 이용해 서술했다.

58)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7, 147~149쪽.

59) David G. Myers, Jean M. Twenge 지음, 이종택 외 옮김, 『마이애스의 사회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20, 53쪽.

60) 동물 주동 인물은 내향형 7회, 외향형 8회로, 외향형이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다.

단을, 이미 주어진 객체 중심의 타성적이고 고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42/60. 70%.)

주동 인물은 반동 인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대응했고, 반동 인물은 타성적인 기준의 판단 기준으로 대응했다. 일반적이고 타성적인 이미 나와진 기준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주동 인물은 자신의 고유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능동적으로 반동 인물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있었다.

반동 인물은 강하고 능동적으로 주동 인물과 대결하지만, 행동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고유한 판단이 아니라, 기존의 타성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대결하기에, 주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바깥의 기준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기준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내향형 주동 인물이 외향형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는, 주체적 인간의 승리와 타성적 인간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내향형/외향형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동 인물은 반동 인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대응했고, 반동 인물은 타성적인 기준의 판단 기준으로 대응했다. 선한 주동 인물은 악한 모습임에도 악한 주동 인물의 강함을 이겨내고 있었다. 주동 인물의 내향형 우세의 승리와 반동 인물의 외향형 우세의 패배는, 자신의 기준과 타인의 기준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대결한 인물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윤리, 사상, 판단을 적용하기보다는 바깥의 요소를 적용하되 그것을 자기화시켜서, 자신에게 알맞은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세상, 세계,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등장인물의 양상과 특성의 의미

앞에서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양상을 살피고, 그 특성을 선악, 강약, 능동성/수동성, 내향형/외향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본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양상과 특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양상과 특성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 1) 선악: 악한 현실과 권선징악의 소망

주동 인물 중 사람은 45회 등장했는데, 선한 인물이 30회 등장했다. 농부, 유복자, 오누이, 두꺼비[兒名], 반쪽이, 흥부, 사형제, 짐꾼, 정직한 늙은이, 학동, 떡보, 한량, 농촌 사람 등 거의 가난한 평민이 주를 이루었고, 부자나 권력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 설화나 민담은 그 향유층이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 또는 평민층이었기에, 주동 인물의 신분이나 상황도 가난한 평민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동 인물 중 사람으로 악한 인물은 15회 등장했다. 외쪽이, 무도한 농민, 토목공이, 사냥꾼의 부인, 금돌이, 욕심 많은 늙은이, 군수, 두 형님, 완고 학자 등이었다. 주로 욕심이 많은 인물, 재산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인물이 등장했다.

주동 인물이 선한 경우 41회, 악한 경우 21회로 선한 주동 인물이 2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설화에서는 주동 인물의 거의 선하게 나오는데 비해, 악한 주동인물이 62화 이야기 중에서 21회나 등장했다.(21/62. 34%) 이는 악한 인물이 당시 사회에 많다는 방증도 되고, 악한 인물을 확실히 징치하기 위해 주동 인물로 내세워, 이야기의 끝에서는 과멸로 끝나는 구도를 취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권선징악(勸善懲惡)의 구도를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볼 수도 있다.

반동 인물 중 사람은 39회 등장했는데, 선 19회 악 20회로 비슷했다.

하지만 반동 인물 중 동물은 14회 등장했는데, 선 3회 약 11회로 악한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적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표층적으로는 ‘인간은 선하고 동물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확연히 구별되며 다르다는 신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많은 논쟁을 벌인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서 이론(異論)의 입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인성(人性)과 물성(物性, 동물성)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논쟁은 20세기 초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61)</sup> 여기서 이론은 인간성과 금수의 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금수와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은 선하고 동물은 악하다고 표현된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인물 특성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선악 특성에서, 주동 인물은 가난하지만 정직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반동 인물은 욕심 많고 악한 부자나 권력자로 나타났다. 욕심 많고 악한 부자와 권력자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존재이다.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은 현실에 영향을 강하게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현실 자체를 선택하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동화대집』은 악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가난한 선이 부유한 악을 이기고 싶은 염원을 권선징악을 통해 보이고 있다. 이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내재된 선의지(善意志)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악한 현실을 권선징악의 소망으로 견디고자 했던 것은 선의 선험적 가치와 절대적 신념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칸트는 선의지는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이라고 했고,<sup>62)</sup>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

61) 한국사상사연구회 지음,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21쪽.

이어야만 한다고 했다.<sup>63)</sup> 이는 착함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존재적(절대적) 가치를 설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고,<sup>64)</sup> 용은 양심은 자율적인 정신 기능으로서 결코 학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sup>65)</sup> 이는 선형적 가치로써의 선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의 선악 특성에서, 가난하지만 정직한 주동 인물이 욕심 많고 부자인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악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권선징악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강약(強弱): 도덕성 우위의 전통성 지향

등장인물의 강약 특성을 살핀 결과, 약한 주동 인물이 강한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구성을 볼 수 있었다. 주동 인물은 부, 권위, 물리적인 힘 등의 면에서 열세에 있어도 강한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착한 아우는 정직하고 온순함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 나쁜 형은 욕심 많고 불효했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로 얻어맞는다. 흥부와 콩쥐는 착함으로 잘살게 되고, 놀부와 계모는 악함으로 망하게 된다. 그리고 정직한 늙은이는 흑을 떼게 되고, 욕심 많은 늙은이는 흑을 하나 더 달게 된다. 아우, 흥부, 콩쥐, 정직한 늙은이 등은 약한 인물이지만 강한 인물을 이겨내어 승리하고, 형, 놀부, 계모, 욕심 많은 늙은이 등은 강한 인물이지만 약한 인물에게 패배하여 곤란을 겪게 된다.

약한 인물과 강한 인물의 대결에서 승리의 중심축은 강약에 있지 않

62)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5, 125쪽.

63)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5, 127쪽.

64) 성백효 역주,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321~322쪽.

65)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7, 353쪽.

고 선악에 있다. 나쁜 부드러움이 착한 강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착한 부드러움이 나쁜 강함을 이기는 것이다. 즉, 강약의 대결을 결정짓는 요소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강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선악이 승리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선악 대결에서 승리하는 쪽은 강한 쪽이 아니라 착한 쪽이기에, 이야기 향유층은 등장인물의 물리적인 강약보다는 도덕적인 선악을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작용하는가 역시 중요하다.<sup>66)</sup> 즉, 힘과 권력은 그 방향성이 올바를 때, 제대로 된 권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방향성은 대다수의 희망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는 도덕적인 선에 바탕을 둘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방향성은 등장인물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권력도 오만으로 흐를 수 있다.<sup>67)</sup>

이러한 방향성 또는 의지가 동물에게는 부족하다고 보아, 『조선동화대집』의 동물 등장인물은 악하고 강한 특성을 많이 보였는데, 이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성의 선(善)함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서, 사람은 불선(不善)한 사람이 없다고 본 것이다.<sup>68)</sup> 그래서 『조선동화대집』에서 동물 등장인물을 악하게 형상화한 것은, 윤리를 아는 사람과 윤리를 알지 못하는 금수를 대비시켜, 악한 특성을 동물에게 많이 투사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sup>69)</sup>

물리적인 강함이 악한 쪽으로 그 힘을 행사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진다. 이 혼란을 악한 선함이 이겨내고자 한다. 악하고 강한 힘이 횡행하더라도, 선한 악한 힘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세상의 현실 상황이 악하고 강한 힘이 승리하는 듯해도, 결국은 선하고 악한 힘

66) 양운덕, 『미셀 푸코』, 살림, 2005, 13~14쪽.

67) I. 칸트 저, 최재희 역, 『실천이성비판』, 박영사, 1992, 189쪽.

68) 성백효 역주,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313~314쪽.

69) 여기서도 앞장에서 말한 ‘인물성동이론’에서 논쟁한 이론(異論)과의 관련을 엿볼 수 있다.(한국사상사연구회 지음,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24~27쪽)

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동화대집』의 강약 특성에서 약한 주동 인물이 강한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 선한 부드러움이 악한 강함을 이긴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이는 부드러움과 강함의 역전이고, 도덕성과 물리력의 대결에서 도덕성이 승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나쁜 강함이 횡행하는 야만적 현실에서 유교적 도덕성에 바탕한 이상적 미래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강약 특성은 선악이 강약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 윤리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을 ‘도덕성 우위의 전통성 지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능동성/수동성: 변화의 의지와 욕망의 개체화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에서 능동성과 수동성을 살핀 결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모두 능동성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착한 주동 인물의 능동성은 농부, 착한 아우, 어린 군수, 오누이, 반쪽이, 짐꾼, 학동, 어린 아이, 한량 등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악한 반동 인물의 능동성은 도적, 나쁜 형, 양반, 늙은 아전, 도깨비, 놀부, 계모, 중국 사신, 군수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주동 인물은 능동 48회 수동 14회였고, 반동 인물은 능동 46회 수동 14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능동적 인물상은 당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이 발간된 시기의 사회적인 상황이,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분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술문화에서 기록문화로 바뀌면서 인간의 정신은 고정되고 형식화된 사고 패턴 대신, 독창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지향할 수 있게 된다.<sup>70)</sup> 그리고 모든 기록은 현실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다.<sup>71)</sup> 구비문학 역시 기록의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수

70) 월터 J. 옹 지음,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9, 60쪽.

있는데, 이는 기록자의 의도와 시대적인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전설화든 문헌설화든 정착의 과정에서 개작의 가능성이 있는데,<sup>72)</sup> 이 ‘개작’은 기록자와 시대 상황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화 갈래 중에서 민담은, 신화나 전설과 달리, ‘자아의 가능성’ 실현을 표방하는 갈래이다.<sup>73)</sup> 민담을 주로 싣고 있는 『조선동화대집』의 기록 과정에서, 당대의 시대적인 능동성이 자아의 가능성, 즉 등장인물의 능동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서사에서 어떤 인물의 행동 특성이 능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해당 인물의 상황 변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러우니 미래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바꾸기 위해,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자신의 상황을 미래에는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을 능동성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주체가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어떤 수행을 성공시킬 때,<sup>74)</sup> 능동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동성/수동성 특성에 나타난 자아의 가능성과 상황 변화의 표현을 ‘변화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동화대집』에는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능동성이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양쪽 모두 우세하다. 선한 인물의 능동성에 나타난 상황 변화의 의지가 악한 인물에도 많이 나타난다. 이는 선한 주동 인물뿐 아니라 악한 반동 인물도 현재 자신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능동성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면,<sup>75)</sup> 수동성은 어떤 상태의 지속이 한 물체 안에서 다른 한 물체에 의해 강요되는 방식이

71)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72쪽.

72) 이지호,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 집문당, 2009, 56쪽.

7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6, 103쪽.

74) 김태환, 『우화의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2016, 71쪽.

75) 존 로크 지음, 정병훈 외 옮김, 『인간지성론』 1, 한길사, 2014, 348쪽.

다.76) 어떤 상황에 대한 능동성을 선한 주동 인물이 띠다는 것은 수궁할 수 있지만, 악한 반동 인물이 능동성을 띠다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권선징악 또는 사필귀정의 주체가 일반적인 이야기에서,77) 악한 반동 인물이 능동성을 띠다는 말은 악도 능동성을 띠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동 인물의 악한 행위도 능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반동 인물의 악한 행위도 능동성을 띠는 말은, 반동 인물의 악한 욕망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한 인물은 선한대로, 악한 인물은 악한대로 자신의 상황 변화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선한 주동 인물과 악한 반동 인물의 능동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동성 즉, 선한 주동 인물과 악한 반동 인물 양쪽 모두에 나타나는 능동성의 특성을 ‘욕망의 개체화’라고 볼 수 있다. ‘선(善)’은 공동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악(惡)’에 기울어지더라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은 무의식의 악을 억압하거나 조절하여 갈등과 대결을 견디어 나감으로써,78) 공동체가 바라는 선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악은 공동체의 이념이 절대 될 수 없고, 철저하게 개인의 은밀한 일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악은 공동체의 욕망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일 수밖에 없다.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 특성에서 착한 주동 인물과 악한 반동 인물 모두 능동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동 인물 반동 인

76) 존 로크 지음, 정병훈 외 옮김, 『인간지성론』 1, 한길사, 2014, 350쪽.

77) 우리 설화의 대체적인 주제인 권선징악, 사필귀정을 선행필보(善行必報), 악행 필벌(惡行必罰)로 분석하기도 한다.(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243~256쪽.)

78)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7, 355쪽.

물 또는 선인 악인 모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악한 반동 인물의 악한 욕망의 능동성은 공동체의 욕망이 아니라, 개인화된 욕망 또는 개체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4) 내향형/외향형: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내향형/외향형 특성을 살핀 결과, 주동 인물은 총 62회 중에서 내향형 36회 외향형 26회, 반동 인물은 총 60회 중에서 내향형 18회 외향형 42회로 나타났다. 내향형 주동 인물은 노인, 농부, 가난한 사람, 외쪽이, 유복자, 해몽자, 오누이, 반쪽이, 흥부, 사형제, 집꾼, 의좋은 형제, 목서방, 떡보, 한량 등이었다. 그리고 외향형 반동 인물은 도깨비, 당나귀 주인, 나쁜 형, 동리 사람들, 양반, 친구, 동네 청년, 늙은 아전, 황제, 부자, 놀부, 청지기, 욕심 많은 늙은이, 하인, 중국 사신, 군수, 재상 등이었다.

주동 인물에서는 내향형 특성이 우세했고, 반동 인물에서는 외향형 특성이 두드러졌다. 주동 인물은 자신의 내부 기준에 따라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성향이 강했고, 반동 인물은 주로 바깥이나 사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성향이 강했다.

특히, 주동 인물의 성격 특성에서 내향형 특성이 우세했는데, 이는 주체적인 근대적 인물 형상의 편린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향형 주동 인물 형상에서 중세적 이념과 다른 근대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중세적 이념은 유교적 가치관, 공동체 우선의 가치관을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근대적 이념, 근대성은 개체로서 갖는 자의식(Selbstbewusstsein)이 중요한 요소인데, 보편적이며 객관적으로 선재(先在)하는 원리와 권위에 의한 판단이 아닌, 자신만의 인식과 도덕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특성이 있다.<sup>79)</sup>

79)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3, 지식산업사, 2006, 121쪽.

<4. 도깨비 돈>에서 주동 인물인 노인은 도깨비를 무서워하는 음귀적(陰鬼的) 요소를 따르지 않고,<sup>80)</sup> 자신에게 유리한 인식과 도덕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도깨비를 이용해 부자가 된다. 노인은 도깨비와의 친교와 절교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13. 외쪽의 피>에서 주동 인물인 외쪽이는 양반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거둬지는 시련을, 자신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극복해 낸다. 외쪽이는 신분과 권력에서 약자인 처지이지만,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기준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 ‘주인에게 복종’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 ‘주인에게 저항’이라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맞선다. <21. 장승 해몽>에서 주동 인물 해몽자(解夢者)는 거짓으로 말하는 꿈 내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여 현실에 적용시킨다. 거짓 꿈으로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극복해낸다. <29. 반쪽 사람>에서 주동 인물인 반쪽이는, 머리·몸통이 ‘반쪽이어서 병신’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으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기지를 발휘하여 부잣집 딸과 혼인한다. 남들이 평가하는 ‘반쪽이’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 <36. 짐꾼의 피>와 <64. 세도 재상과 한량>에서도 짐꾼과 한량의 개체로서 갖는 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짐꾼은 소반을 깨뜨린 위기를 자신의 기지로 처리하고, 한량은 보편적 판단이 아닌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재상을 속이고 벼슬을 얻는다.<sup>81)</sup>

80) 김중대,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7, 33쪽. 도깨비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귀류적인 특성 때문에 사람과 가까이 하기에는 힘든 존재이다.(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210~214쪽.)

81)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사, 2017, 504~507쪽. 한량은 재상에게 기러기가 큰 독만한 앵도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재상을 앵도 크기에 집중하게 하여, 여름에 기러기가 있다는 거짓말을 재상이 믿게 한다. 앵도 크기에 집중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고, 계절로 재상을 속인 것은 한량 자신만의 기

이러한 주동 인물의 행동과 성격은 개체로서 갖는 자의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이것은 주체성을 중시하는 내향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객체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개체로서 갖는 자의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체성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사 과정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할 때, 주체성을 중시하면 내향성을 띤 인물로 볼 수 있다. 주체성은 근대철학에서도 중시되는데, 철저히 생각하는 나, 자기를 반성적으로 의식하는 나만을 참된 나로 간주한다.<sup>82)</sup> 이는 개별성이라 할 수 있는데, 내향형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동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과 판단은 비주체적인 것이다.<sup>83)</sup>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어떤 상황을 헤쳐 가는 인물 형상의 특성을 내향형이라 볼 수 있고, 이 내향형 인물 형상에서 개체 인간의 발견으로 대표되는 근대성의 편린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내향형/외향형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 개체 인간의 발견과 근대성의 편린을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동화대집』이 발간된 1920~30년대는, 공동문어문학에서 민족어문학으로 전환하던 근대성이 싹튼 시기였고,<sup>84)</sup> 유교 신분제가 흔들리고 평민, 여성, 아동의 교육 기회가 늘어나는 시기였다. 이에 편승하여 수험 준비서와 학습 참고서가 많이 출판되었고, 아동 도서의 발간 또한 폭증했다.<sup>85)</sup> 이 시기 조선의 어린이는 ‘근대시민의 씨앗’이기도 했고, 민족적 계몽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인내천의 천사이기도 했다.<sup>86)</sup>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 양상에서 내향

---

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2)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1, 지식산업사, 2005, 257~258쪽.

83) 양운덕, 『미셀 푸코』, 살림, 2005, 54쪽.

84)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그림동화집』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96집, 한국문학회, 2024, 240쪽.

85)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19, 184쪽.

86)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19, 216쪽.

형 성격이 두드러진 특성에서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당대의 시대적 흐름인 교육열, 근대성, 민족적 계몽과도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과 특성의 의미를 ‘선악: 악한 현실과 권선징악의 소망’, ‘강약: 도덕성 우위의 전통성 지향’, ‘능동성/수동성: 변화의 의지와 욕망의 개체화’, ‘내향형/외향형: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 등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권선징악, 도덕성 우위, 욕망의 개체화, 근대적 인물 형상 등은 『조선동화대집』의 고유한 인물 특성이 아니라, 설화의 일반적 인물 특성과 겹쳐진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조선동화대집』도 일종의 설화집이어서 설화의 일반성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악한 현실과 권선징악의 소망’과 ‘도덕성 우위의 전통성 지향’은 『조선동화대집』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다른 설화에서도 찾을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변화의 의지와 욕망의 개체화’와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는 다른 설화 작품에서 찾기 어려운 『조선동화대집』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 특성에 설화의 ‘일반성’과 『조선동화대집』의 ‘고유성’이 함께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구술성과 기록성의 인자가 『조선동화대집』의 근저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 선악과 강약 특성은 1차적 특성, 주어진 특성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선악과 강약에서 나타나는 권선징악과 도덕성 역시 1차적 특성 또는 주어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특성’이라는 말은 『조선동화대집』의 기록, 채록, 편찬 당시의 설화 향유층에서 이미 구전되고 있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선징악과 도덕성은 채록자의 의도보다는 당대 설화 향유층의 의도, 생각,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권선징악과 도덕

성이라는 1차적 특성 또는 주어진 특성은, 『조선동화대집』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화의 일반적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술성’의 인자가 『조선동화대집』의 채록 당시에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술성은 구비문학의 각편들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관련되고,<sup>87)</sup> 이야기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없게 하는 구술전통이기도 하고,<sup>88)</sup> 구술문화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틀을 취하기도 한다.<sup>89)</sup> 따라서 구술성은 설화 작품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의 인자로 볼 수 있다.

한편, 능동성/수동성과 내향형/외향형은 2차적 특성 또는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했다.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이야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는 이야기의 특성이 구술자나 채록자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설화는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은 구술자나 채록자의 의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능동성/수동성과 내향형/외향형의 특성에 나타나는 ‘변화의 의지와 욕망의 개체화’와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라는 의미는, 권선징악이나 도덕성처럼 설화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욕망의 개체화’와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는 설화의 일반성 보다는 『조선동화대집』의 고유성을 더 많이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성’의 인자가 『조선동화대집』의 채록 당시에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록성은 집단적 활동보다는 개별적 활동과 관련되며,<sup>90)</sup> 독자층을 고려한 개작(改作)의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p>91)</sup> 따라서 기록성은 설화 작품에 특

87) 조동일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5쪽.

88) 카트린 피게-알더(Kathrin Pöge-Alder) 지음,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269쪽.

89) 월터 J. 옹 지음,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9, 85쪽.

90) 월터 J. 옹 지음,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9, 239쪽.

91) 최인학, 『한국설화론』, 형설출판사, 1991, 83쪽.

수하게 존재하는 특성의 인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술성이 일반성 또는 집단적 활동을, 기록성이 고유성 또는 개인적 활동을 나타낸 경우는 조선후기 문헌설화와 우화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구전 민담이 창조 내지 재창조되어 문헌설화로 기록되는 과정과,<sup>92)</sup> 우화가 소설화되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정이 그것이다.<sup>93)</sup>

## 5. 맺으면서

본고의 목적은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을 고찰했다.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사람, 동물, 사물(神靈 포함)로 나누고, 이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 사람[人] | 동물[動] | 사물·신령[事] | 합   |
|-------|-------|-------|----------|-----|
| 주동 인물 | 45    | 15    | 2        | 62  |
| 반동 인물 | 39    | 14    | 7        | 60  |
| 합     | 84    | 29    | 9        | 122 |

『조선동화대집』의 등장인물을 사람, 동물, 사물로 나누었을 때 사람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물이나 신령보다는 ‘사람’ 등장인물이 훨씬 많았다. 그 이유를 『조선동화대집』 발간 당시의 강한 현실성이 반영된 것과, 설화의 갈래인 민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과, 기록 과

9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민속의 세계』 제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28쪽.

93) 민찬,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16쪽.

정에서 작자인 심의린의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그다음 이러한 등장인물의 양상에 나타난 특성을 선악, 강약(물리력, 부귀, 빈천), 능동성/수동성, 내향형/외향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주동 인물 특성표

|                  |       |      | 강(強) | 약(弱) | 능동성 | 수동성 | 내향형 | 외향형 |
|------------------|-------|------|------|------|-----|-----|-----|-----|
| 주<br>동<br>인<br>물 | 사람(人) | 선(善) | 3    | 27   | 20  | 10  | 17  | 13  |
|                  |       | 악(惡) | 7    | 8    | 12  | 3   | 10  | 5   |
|                  | 동물(動) | 선(善) | 3    | 7    | 10  | 0   | 5   | 5   |
|                  |       | 악(惡) | 4    | 1    | 5   | 0   | 2   | 3   |
|                  | 사물(事) | 선(善) | 1    | 0    | 1   | 0   | 1   | 0   |
|                  |       | 악(惡) | 0    | 1    | 0   | 1   | 1   | 0   |

\* 반동 인물 특성표

|                  |       |      | 강(強) | 약(弱) | 능동성 | 수동성 | 내향형 | 외향형 |
|------------------|-------|------|------|------|-----|-----|-----|-----|
| 반<br>동<br>인<br>물 | 사람(人) | 선(善) | 10   | 9    | 12  | 7   | 4   | 15  |
|                  |       | 악(惡) | 20   | 0    | 18  | 2   | 5   | 15  |
|                  | 동물(動) | 선(善) | 1    | 2    | 3   | 0   | 1   | 2   |
|                  |       | 악(惡) | 10   | 1    | 8   | 3   | 3   | 8   |
|                  | 사물(事) | 선(善) | 5    | 0    | 3   | 2   | 3   | 2   |
|                  |       | 악(惡) | 2    | 0    | 2   | 0   | 2   | 0   |

선악 특성을 살핀 결과, 착한 사람 주동 인물은 선함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악한 사람 주동 인물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형상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착한 사람 반동 인물은 욕심 없고 순수한 인물이었고, 악한 사람 반동 인물은 재물이 많은데도 욕심을 부리는 인물로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강약 특성을 살핀 결과, 주동 인물은 약자로 등장하고 반동 인물은 강자로 등장하여, 악한 주동 인물이 강한 반동 인물과 갈등하는 구조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능동성/수동성의 특성을 살핀 결과, 사람과 동물, 선악을 불문하고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모두에서 능동성이 강했는데, 이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모두 자신이 처한 상

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었다. 내향형/외향형 특성을 살핀 결과, 선한 주동 인물은 약하고 불리한 상황임에도 약한 주동 인물의 강함을 이겨내고 있었다. 주동 인물의 내향형 우세의 승리와 반동 인물의 외향형 우세의 패배는, 자신의 기준과 타인의 기준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대결한 인물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주동 인물의 일반적인 특성은 선하고(41/62. 66%), 약하고(34/62. 55%), 능동적이고(31/62. 50%), 내향형(23/62. 37%)이었다. 이를 풀이하면, 주동 인물은 선한 성격으로 약한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반동 인물 또는 세계와의 갈등을 자기만의 주체적 판단 기준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었다. 반동 인물의 일반적인 특성은 악하고(33/60. 55%), 강하고(32/60. 53%), 능동적이고(28/60. 47%), 외향형(23/60. 38%)이었다. 이를 풀이하면, 반동 인물은 악한 성격으로 강한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주동 인물 또는 세계와의 갈등을 타성적인 외부적 판단 기준으로 해결하다가 패배한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핀 이러한 양상과 특성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았다. 선악 특성에서, 가난하지만 정직한 주동 인물이 욕심 많고 부자인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악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권선징악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강약 특성에서, 약한 주동 인물이 강한 반동 인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 선한 부드러움이 악한 강함을 이긴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이는 선악이 강약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 윤리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을 ‘도덕성 우위의 전통성 지향’이라고 할 수 있었다. 능동성/수동성 특성에서, 착한 주동 인물과 악한 반동 인물 모두 능동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동 인물 반동 인물 또는 선인 악인 모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악한 반

동 인물의 악한 욕망의 능동성은 공동체의 욕망이 아니라, 개인화된 욕망 또는 개체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변화의 의지와 욕망의 개체화’였다. 내향형/외향형 특성에서, 주동 인물에서는 내향형 특성이 우세했고, 반동 인물에서는 외향형 특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주동 인물의 성격 특성에서 내향형 특성이 우세했는데, 이는 주체적인 근대적 인물 형상의 편린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근대적 인물 형상의 대두’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등장인물 특성에는 설화의 ‘일반성’과 『조선동화대집』의 ‘고유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구술성과 기록성의 인자가 근저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양상, 특성, 의미를 살폈다. 표층적인 분석이 아니라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선악, 강약, 능동성/수동성, 내향형/외향형 등의 특성은 ‘의식’의 영역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분석심리학의 접근을 원용하여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민속의 세계』 제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구인환, 『소설론』, 삼지원, 1997.
- 권석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학지사, 2015.
- 김정철, 『그림형제의 동화』, 경북대학교출판부, 2008.
- 김종대,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7.
- 김태환, 『우화의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2016.
-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 \_\_\_\_\_,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 민찬,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 성백효 역주,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1984.
-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서, 2017.
- 심우장 외,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 책과함께, 2008.
- 양운덕, 『미셀 푸코』, 살림, 2005.
-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1·3, 지식산업사, 2006.
- 이대규, 『문학의 해석』, 신구문화사, 1998.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7.
-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 이어령 책임편집, 『십이지신 호랑이』, 생각의나무, 2009.
-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이지호,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 집문당, 200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2, 지식산업사, 2006.
- 조동일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19.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최인학, 『한국설화론』, 형설출판사, 1991.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한국사상사연구회 지음,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 한명숙, 『이야기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 그림 형제 지음, 김경연 옮김, 『그림 형제 민담집』, 현암사, 2021.
- 알랭 로브그리에 지음, 박이문 외 옮김, 『질투』, 민음사, 2005.
- 월터 J. 옹 지음,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9.
-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5.
-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 존 로크 지음, 정병훈 외 옮김, 『인간지성론』 1, 한길사, 2014.
- 카트린 뢰게-알더(Kathrin Pöge-Alder) 지음,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 David G. Myers, Jean M. Twenge 지음, 이종택 외 옮김, 『마이어스의 사회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20.
- I. 칸트 著, 최재희 譯, 『실천이성비판』, 박영사, 1992.

## 2. 논문

- 김정철, 「그림형제 동화의 등장인물 연구」, 『독일어문학』 제62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3, 93~111쪽.
- 신원기, 「『개벽』의 <은파리>에 나타난 풍자의 양상」, 『동학학보』 제58호, 동학학회, 2021, 79~105쪽.
- \_\_\_\_\_, 「『조선동화대집』과 『그림동화집』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96집, 한국문학회, 2024, 209~276쪽.
- 이강엽, 「설화의 ‘짜패’ 인물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33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45~76쪽.
- 이홍우, 「근대 재담집 『소천소지』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34집, 한국구비문학회, 2012, 39~86쪽.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in  
the *Great Book of Joseon Fairy Tales*

Shin, Won-Gi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in the *Great Book of Joseon Fairy Tales*, widely regarded as the first Korean anthology of fairy tales and folktales. First, we survey the distribution of character types. When categorized into humans, animals, and objects, human characters account for roughly 70 percent. This is a reinforcement of the on-the-spot nature, because it reflected the strong reality at the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Great Book of Joseon Fairy Tales*, the influence of Mindam-branch of folktales, and the intention of the author Shim Eui-rin.

Second, we analyze character traits along four characteristics-good/evil, strong/weak, active/passive, and introverted/extraverted. Protagonists are generally portrayed as good, weak, active, and introverted, whereas antagonists are typically evil, strong, active, and extraverted.

Third,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patterns: the good/evil characteristic expresses dissatisfaction with harsh realities together with a didactic hope for the reward of good and punishment of evil; the strong/weak characteristic indicates an orientation toward moral superiority rooted in tradition; the active/passive characteristic suggests a will for change and the individuation of desire; and the introverted/

---

\* Busan Dong-Cheon High School.

extraverted characteristic points to the emergence of the modern character figure.

Key Words: *Great Book of Joseon Fairy Tales*, characters, good and evil, strong and weak, active, passive, introverted, extraverted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0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6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8일

## &lt;붙임&gt; 『조선동화대집』 등장인물의 양상과 특성 일람표

|    | 主/反 | 등장인물   | 人 | 動 | 事 | 善 | 惡 | 強 | 弱 | 能動 | 受動 | 內向 | 外向 |
|----|-----|--------|---|---|---|---|---|---|---|----|----|----|----|
| 1  | 주동  | 호랑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스님     | ○ |   |   | ○ |   |   | ○ |    | ○  | ○  |    |
| 2  | 주동  | 별치     |   | ○ |   |   | ○ | ○ |   | ○  |    |    | ○  |
|    | 반동  | 가자미    |   | ○ |   | ○ |   |   | ○ | ○  |    | ○  |    |
| 3  | 주동  | 가난한 부인 | ○ |   |   |   | ○ |   | ○ | ○  |    |    | ○  |
|    | 반동  | 가게 주인  | ○ |   |   | ○ |   | ○ |   | ○  |    |    | ○  |
| 4  | 주동  | 노인     | ○ |   |   |   | ○ |   | ○ | ○  |    | ○  |    |
|    | 반동  | 도깨비    |   |   | ○ | ○ |   | ○ |   |    | ○  |    | ○  |
| 5  | 주동  | 호랑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도적     | ○ |   |   |   | ○ | ○ |   | ○  |    | ○  |    |
| 6  | 주동  | 농부     | ○ |   |   | ○ |   |   | ○ | ○  |    | ○  |    |
|    | 반동  | 수박 장수  | ○ |   |   |   | ○ |   | ○ | ○  |    | ○  |    |
|    |     | 당나귀 주인 | ○ |   |   | ○ |   | ○ |   | ○  |    |    | ○  |
| 7  | 주동  | 바보 사위  | ○ |   |   |   | ○ |   | ○ |    | ○  | ○  |    |
|    | 반동  | 장인     | ○ |   |   | ○ |   | ○ |   | ○  |    |    | ○  |
| 8  | 주동  | 개구리 신선 |   |   | ○ | ○ |   | ○ |   | ○  |    | ○  |    |
|    | 반동  | 금애     | ○ |   |   |   | ○ | ○ |   | ○  |    |    | ○  |
| 9  | 주동  | 착한 아우  | ○ |   |   | ○ |   |   | ○ | ○  |    |    | ○  |
|    | 반동  | 나쁜 형   | ○ |   |   |   | ○ | ○ |   | ○  |    |    | ○  |
| 10 | 주동  | 오성     | ○ |   |   | ○ |   | ○ |   | ○  |    | ○  |    |
|    | 반동  | 징 제조자  | ○ |   |   | ○ |   |   | ○ | ○  |    |    | ○  |
| 12 | 주동  | 가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반동  | 동리 사람들 | ○ |   |   | ○ |   | ○ |   | ○  |    |    | ○  |
| 13 | 주동  | 외쪽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양반     | ○ |   |   |   | ○ | ○ |   | ○  |    |    | ○  |
| 14 | 주동  | 착한 아우  | ○ |   |   | ○ |   |   | ○ |    | ○  |    | ○  |
|    | 반동  | 나쁜 형   | ○ |   |   |   | ○ | ○ |   | ○  |    | ○  |    |
| 15 | 주동  | 가난한 농부 | ○ |   |   | ○ |   |   | ○ | ○  |    |    | ○  |
|    | 반동  | 부유한 농부 | ○ |   |   | ○ |   | ○ |   | ○  |    | ○  |    |
| 16 | 주동  | 곰, 멧돼지 |   | ○ |   | ○ |   | ○ |   | ○  |    |    | ○  |
|    | 반동  | 계      |   | ○ |   |   | ○ | ○ |   |    | ○  |    | ○  |
| 17 | 주동  | 견우, 직녀 |   |   | ○ |   | ○ |   | ○ |    | ○  | ○  |    |
|    | 반동  | 옥황상제   |   |   | ○ | ○ |   | ○ |   | ○  |    | ○  |    |

|    | 主/反 | 등장인물   | 人 | 動 | 事 | 善 | 惡 | 強 | 弱 | 能動 | 受動 | 內向 | 外向 |
|----|-----|--------|---|---|---|---|---|---|---|----|----|----|----|
| 18 | 주동  | 별주부    |   | ○ |   |   | ○ | ○ |   | ○  |    |    | ○  |
|    | 반동  | 토끼     |   | ○ |   | ○ |   |   | ○ | ○  |    |    | ○  |
| 19 | 주동  | 고양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쥐      |   | ○ |   |   | ○ |   | ○ |    | ○  |    | ○  |
| 20 | 주동  | 유복자    | ○ |   |   | ○ |   |   | ○ | ○  |    | ○  |    |
|    | 반동  | 친구     | ○ |   |   |   | ○ | ○ |   | ○  |    |    | ○  |
| 21 | 주동  | 해몽자    | ○ |   |   | ○ |   |   | ○ |    | ○  | ○  |    |
|    | 반동  | 동네 청년  | ○ |   |   |   | ○ | ○ |   | ○  |    |    | ○  |
| 22 | 주동  | 어린 군수  | ○ |   |   | ○ |   |   | ○ | ○  |    |    | ○  |
|    | 반동  | 늙은 아전  | ○ |   |   |   | ○ | ○ |   | ○  |    |    | ○  |
| 23 | 주동  | 오누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범      |   | ○ |   |   | ○ | ○ |   | ○  |    |    | ○  |
| 25 | 주동  | 이리, 여우 |   | ○ |   | ○ |   |   | ○ | ○  |    |    | ○  |
|    | 반동  | 원숭이    |   | ○ |   |   | ○ | ○ |   | ○  |    | ○  |    |
| 27 | 주동  | 두꺼비    | ○ |   |   | ○ |   |   | ○ |    | ○  |    | ○  |
|    | 반동  | 황제     | ○ |   |   | ○ |   | ○ |   | ○  |    |    | ○  |
| 28 | 주동  | 오성     | ○ |   |   | ○ |   |   | ○ |    | ○  |    | ○  |
|    | 반동  | 도깨비    |   |   | ○ |   | ○ | ○ |   | ○  |    | ○  |    |
| 29 | 주동  | 반쪽이    | ○ |   |   | ○ |   |   | ○ |    |    | ○  |    |
|    | 반동  | 부자     | ○ |   |   | ○ |   |   | ○ |    | ○  |    | ○  |
| 30 | 주동  | 홍부     | ○ |   |   | ○ |   |   | ○ |    | ○  | ○  |    |
|    | 반동  | 늘부     | ○ |   |   |   | ○ | ○ |   | ○  |    |    | ○  |
| 31 | 주동  | 무도한 농민 | ○ |   |   |   | ○ | ○ |   | ○  |    |    | ○  |
|    | 반동  | 아들 갑득이 | ○ |   |   | ○ |   |   | ○ | ○  |    | ○  |    |
| 32 | 주동  | 토목공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자린고비   | ○ |   |   |   | ○ | ○ |   | ○  |    | ○  |    |
| 34 | 주동  | 사냥꾼 부인 | ○ |   |   |   | ○ |   | ○ | ○  |    |    | ○  |
|    | 반동  | 사슴[仙女] |   |   | ○ | ○ |   |   | ○ |    | ○  | ○  |    |
| 35 | 주동  | 사형제    | ○ |   |   | ○ |   |   | ○ | ○  |    | ○  |    |
|    | 반동  | 이무기    |   | ○ |   |   | ○ | ○ |   | ○  |    |    | ○  |
| 36 | 주동  | 짐꾼     | ○ |   |   | ○ |   |   | ○ | ○  |    | ○  |    |
|    | 반동  | 청지기    | ○ |   |   |   | ○ | ○ |   | ○  |    |    | ○  |
| 37 | 주동  | 갑득선    | ○ |   |   | ○ |   |   | ○ |    | ○  |    | ○  |
|    | 반동  | 신녀     |   |   | ○ | ○ |   |   | ○ |    |    | ○  |    |

|    | 主/反 | 등장인물      | 人 | 動 | 事 | 善 | 惡 | 強 | 弱 | 能動 | 受動 | 內向 |
|----|-----|-----------|---|---|---|---|---|---|---|----|----|----|
| 38 | 주동  | 콩쥐        | ○ |   |   | ○ |   |   | ○ |    | ○  | ○  |
|    | 반동  | 계모        | ○ |   |   |   | ○ | ○ |   | ○  |    | ○  |
| 41 | 주동  | 금돌이       | ○ |   |   |   | ○ | ○ |   | ○  |    | ○  |
|    | 반동  | 어린애       | ○ |   |   | ○ |   |   | ○ |    | ○  | ○  |
| 42 | 주동  | 의좋은 형제    | ○ |   |   | ○ |   |   | ○ |    | ○  | ○  |
|    | 반동  | 보석 구슬     |   |   | ○ | ○ |   | ○ |   |    | ○  | ○  |
| 43 | 주동  | 정직한 늙은이   | ○ |   |   | ○ |   |   | ○ | ○  |    | ○  |
|    | 반동  | 욕심 많은 늙은이 | ○ |   |   |   | ○ |   | ○ | ○  |    | ○  |
| 44 | 주동  | 도깨비       |   |   | ○ |   | ○ | ○ |   | ○  |    | ○  |
|    | 반동  | 목서방       | ○ |   |   |   | ○ | ○ |   | ○  |    | ○  |
| 45 | 주동  | 사람들       | ○ |   |   | ○ |   |   | ○ |    | ○  | ○  |
|    | 반동  | 군수        | ○ |   |   |   | ○ | ○ |   |    | ○  | ○  |
| 46 | 주동  | 하인        | ○ |   |   | ○ |   |   | ○ | ○  |    | ○  |
|    | 반동  | 토끼        |   | ○ |   | ○ |   |   | ○ | ○  |    | ○  |
| 47 | 주동  | 사람들       | ○ |   |   |   | ○ | ○ |   |    | ○  | ○  |
|    | 반동  | 착한 아우     | ○ |   |   | ○ |   |   | ○ |    | ○  | ○  |
| 48 | 주동  | 욕심 많은 형   | ○ |   |   |   | ○ | ○ |   | ○  |    | ○  |
|    | 반동  | 학동        | ○ |   |   | ○ |   |   | ○ | ○  |    | ○  |
| 49 | 주동  | 선생        | ○ |   |   | ○ |   |   | ○ | ○  |    | ○  |
|    | 반동  | 거북        |   | ○ |   | ○ |   |   | ○ | ○  |    | ○  |
| 50 | 주동  | 여우        |   | ○ |   |   | ○ | ○ |   | ○  |    | ○  |
|    | 반동  | 두 형님      | ○ |   |   |   | ○ | ○ |   | ○  |    | ○  |
| 51 | 주동  | 아우        | ○ |   |   | ○ |   |   | ○ |    | ○  | ○  |
|    | 반동  | 여우        |   | ○ |   |   | ○ |   | ○ | ○  |    | ○  |
| 52 | 주동  | 범         |   | ○ |   |   | ○ | ○ |   |    | ○  | ○  |
|    | 반동  | 떡보        | ○ |   |   | ○ |   |   | ○ |    | ○  | ○  |
| 53 | 주동  | 술보        | ○ |   |   | ○ |   |   | ○ |    | ○  | ○  |
|    | 반동  | 착한 아우     | ○ |   |   | ○ |   |   | ○ | ○  |    | ○  |
| 54 | 주동  | 나쁜 형      | ○ |   |   |   | ○ | ○ |   | ○  |    | ○  |
|    | 반동  | 두꺼비       |   | ○ |   | ○ |   |   | ○ |    | ○  | ○  |
| 55 | 주동  | 토끼, 거북이   |   | ○ |   | ○ |   |   | ○ |    | ○  | ○  |
|    | 반동  | 개         |   | ○ |   | ○ |   |   | ○ | ○  |    | ○  |
| 56 | 주동  | 범         |   | ○ |   |   | ○ | ○ |   |    | ○  | ○  |
|    | 반동  | 떡보        | ○ |   |   | ○ |   |   | ○ | ○  |    | ○  |
| 57 | 주동  | 중국 사신     | ○ |   |   |   | ○ | ○ |   | ○  |    | ○  |
|    | 반동  |           | ○ |   |   |   | ○ | ○ |   | ○  |    | ○  |

|    | 主/反 | 등장인물      | 人 | 動 | 事 | 善 | 惡 | 強 | 弱 | 能動 | 受動 | 內向 | 外向 |
|----|-----|-----------|---|---|---|---|---|---|---|----|----|----|----|
| 58 | 주동  | 어린 아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군수        | ○ |   |   |   | ○ | ○ |   | ○  |    |    | ○  |
| 59 | 주동  | 아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생원        | ○ |   |   |   | ○ | ○ |   |    | ○  |    | ○  |
| 60 | 주동  | 천치 신랑     | ○ |   |   |   | ○ |   | ○ | ○  |    | ○  |    |
|    | 반동  | 처가 식구     | ○ |   |   | ○ |   | ○ |   |    | ○  |    | ○  |
| 61 | 주동  | 한량        | ○ |   |   | ○ |   | ○ |   | ○  |    | ○  |    |
|    | 반동  | 평         |   | ○ |   | ○ |   |   | ○ | ○  |    | ○  |    |
| 62 | 주동  | 구렁이       |   | ○ |   |   | ○ | ○ |   | ○  |    |    | ○  |
|    | 반동  | 개, 고양이    |   | ○ |   | ○ |   |   | ○ | ○  |    | ○  |    |
| 63 | 주동  | 어떤 사람     | ○ |   |   |   | ○ | ○ |   | ○  |    |    | ○  |
|    | 반동  | 농촌 사람     | ○ |   |   | ○ |   |   | ○ | ○  |    |    | ○  |
| 64 | 주동  | 여우        |   | ○ |   |   | ○ | ○ |   | ○  |    | ○  |    |
|    | 반동  | 한량        | ○ |   |   | ○ |   |   | ○ | ○  |    | ○  |    |
| 65 | 주동  | 재상        | ○ |   |   | ○ |   | ○ |   |    | ○  |    | ○  |
|    | 반동  | 완고 학자     | ○ |   |   |   | ○ | ○ |   |    | ○  | ○  |    |
| 66 | 주동  | 동네 사람, 친구 | ○ |   |   | ○ |   |   | ○ | ○  |    |    | ○  |
|    | 반동  | 두꺼비       |   | ○ |   | ○ |   |   | ○ | ○  |    | ○  |    |
| 66 | 주동  | 딸(소녀)     | ○ |   |   | ○ |   |   | ○ | ○  |    | ○  |    |
|    | 반동  | 지네        |   | ○ |   |   | ○ | ○ |   | ○  |    |    | ○  |